

#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와 가족지원이 개인 및 가정건강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 정 미(대구대 겸임교수) · 조 희 금(대구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 특성과 기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인인식변화 및 가정건강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형식·비형식평생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 670부 중 부실하게 기재된 23부를 제외한 647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평생교육참여특성으로 참여 실태와 참여 동기, 그리고 가족의 지원정도를 알아보는 문항들과 개인인식변화와 가정의 건강성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척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Factor Analysis), Pearson 상관관계, t-test와 ANOVA, 중다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학력, 가계소득, 취업유무는 기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교육참여특성인 평생교육 참여실태는 형식교육에 191명(29.5%), 비형식교육기관에 476명(70.5%)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참여 프로그램은 학력보완 177명(27.4%),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 20(3.1%), 직업능력향상 131명(20.2%), 인문교양 86명(13.3%), 문화예술교육 104명(16.1%), 시민참여교육 67명(10.4%), 스포츠·건강교육 50명(7.7%), 기타 12명(1.9%) 참여하였다. 주로 이용하는 교육기관은 여성회관 104명(16.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부설평생교육원 86명(13.3%), 사이버대학 76명(11.7%), 평생학습관 68명(10.5%), 사회복지관 57명(8.8%), 문화센터 50명(7.7%), 도서관 47명(7.3%) 주민자치센터 45명(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직업훈련기관 12명(1.9%), 방송통신대학 11명(1.7%), 연수기관 11명(1.7%) 주부대학 10명(1.5%) 인력개발기관 9명(1.4%), 학원 7명(1.1%), 기타 13명(2.0%) 등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주당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10시간 미만 307명(47.4%), 10시간-20시간 미만 206명(31.8%), 20시간 이상이 134명(20.7%)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 동기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자아실현동기 4.0점, 삶의 활력동기 3.5점 자기계발동기 3.4점 관계지향동기 3.3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여성의 평생교육참여에 대해 가족의 지원도 역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가족지원 가운데 호응도는 3.8점으로 평생교육참여에 대해 가족들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호응도가 높은 사람은 자매·친구 등으로 4.3점이었으며, 다음으로 딸 4.0점, 남편 3.9점, 아들 3.9점, 친정부모 3.8점, 시댁부모 3.1점 순서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지원의 영역별 내용을 보면, 정서적 지원(3.7)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편의제공(2.9), 가사지원(2.8), 학습지원(2.7), 경제적 지원(2.6)을 하고 있었다. 넷째, 평생교육참여에 따른 개인인식변화는 스스로 자아 존중감(4.1)이 향상되었다고 지각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삶의 질 향상(3.9), 가족사랑 향상(3.9), 부모-자녀관계 향상(3.8), 부부관계 향상(3.7)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의 건강성은 전반적인 가정건강성 뿐만 아니라 친밀성과 적응성을 알아보는 가족관계, 가족가치와 자원활용성을 알아보는 자원관리, 균형성과 지역사회관계를 알아보는 외부관계 등 하위영역을 알아보았는데 전체 가정건강성은 3.46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가족관계는 3.60, 자원관리는 3.37, 외부관계는 3.41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평생교육참여특성, 가족의 호응도 및 지원정도와 가정건강성변화를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가정건강성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개인인식변화와 남편의 호응도로 나타났고, 61.1%의 설명력을 갖는다. 가정건강성 변화는 개인인식변화( $\beta=.522$ )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남편의 호응도( $\beta=.336$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